

## 초·중·고생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Students' Attitudes to Internet Media Language and  
Orthographic Knowledge on Their Use of Internet Media Language\*

최나야(Naya Choi)<sup>1)</sup>

한유진(Eugene Han)<sup>2)</sup>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udents' attitudes to internet media language and orthographic knowledge on their use of internet media language. The participants were 989 students in the 4th to 11th grades in Kyunggi-do.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nts used more internet media language in internet literacy than for general writing. Elementary students exhibited significantly less orthographic knowledge and used more internet media language to write on the internet than older students. Students' attitudes to internet media language went a long way to explaining their self-assessment on the frequency of using internet media language and their genuine use of internet media language on the internet. Their orthographic knowledge, however, was not a significant predictor for their use of internet media language.

**Key Words** : 인터넷 매체언어(internet media language),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attitudes to internet media language), 맞춤법 지식(orthographic knowledge),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use of internet media language).

\* 이 논문은 2009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의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sup>1)</sup>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조교수

<sup>2)</sup> 명지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Corresponding Author** : Eugene Han, Department of Child Studies, Myongji University, Namgajwa-dong 50-3, Seodaemun-gu, Seoul 120-728, Korea  
E-mail : cyberado@hanmail.net

## I. 서 론

우리나라의 인터넷 보급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5월 현재 인터넷 사용자는 만 3세 이상 인구의 77.2%인 3,658만 명에 달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0). 초고속 인터넷 가입률이 100명당 32.14명으로 세계 8위인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만 아니라 학교, 회사, 공공기관, PC방 등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근이 용이하다.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의 확대로 학교와 학원에서의 사용도 늘어나 6-19세 인터넷 이용률은 전체 연령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김영혜 · 손현미 · 양영옥 · 조영란 · 이내영, 2007).

인터넷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으로 인터넷 매체언어의 발생을 들 수 있다. ‘PC통신 언어’, ‘통신언어’,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어 온 인터넷 매체언어는 넓은 의미의 매체언어 중에서 ‘컴퓨터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인 인터넷에서 텍스트화된 메시지를 저장, 편집, 발송, 교환하여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을 의미한다(이태영, 2000; 임규홍, 2000). 인터넷 매체언어는 게임, 채팅, 전자우편 및 다양한 게시판 등을 통해 손쉽게 개인의 생각을 전달하고, 타인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면서 언어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홍지은, 2006).

인터넷 매체언어를 구어와 문어의 중간자적 특성을 지닌 새로운 언어로 보고, 음성언어에서 문자언어를 거쳐 인터넷 매체언어가 발달하는 과정에 주목하는 입장도 제기되었다(한동완, 2002). 실제로 인터넷 매체언어의 두드러지는 특성 중 한 가지는 이중성이다. 인터넷 매체언어는 사람과 사람 간의 대면 상황이 아닌 매체를 통한 간

접적인 상호작용 상황에서 읽기와 쓰기로 이루어지는 문어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언어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말하기와 듣기로 이루어지는 대화와 유사하다. 즉, 입말을 글말로 전환하여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이 인터넷 매체언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매체언어의 빠른 생성과 진화에 발맞추어 이에 관한 연구자들의 관심도 증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를 정리해보면, 첫째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특성을 고찰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실태를 사회언어학적으로 분석하려는 연구 경향이다(송민규, 2001; 이시훈, 2004; 이재현, 2004; 이정복, 1997, 1999; 전은진, 2001). 선행연구들은 인터넷 매체언어의 특성으로 문자 언어와 음성 언어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점, 언어 경제성 추구의 결과로 발화가 완전한 문장의 형태보다는 단어나 구 형식의 짧은 형태를 지니는 점, 기존의 언어 규범에서 탈피한 표기, 새로운 어휘의 출현, 의성어와 의태어, 이모티콘을 활용한 감정표현, 기호를 이용한 표기 등을 들고 있다.

둘째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이 언어학적으로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문법적 연구들이다(김기석, 2001; 김봉섭, 1998; 노형남, 2000; 이재진, 2000; 이진성, 2001). 이러한 연구들은 매체언어 사용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존의 언어규범과 표준 맞춤법에서 탈피한 국어파괴와 세대 간 또는 매체언어 사용자와 비사용자 간의 소통의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매체언어에 의한 언어 변형이 기존 국어 체계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그 생소함으로 인해 해석의 곤란을 일으켜 의사소통의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재현, 2004). 이 중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의 문제점을 실증연구로 증명하고자 한 이진성(2001)은 대학생들의 논술시

험 답안 분석을 통해 인터넷 매체언어식 표현으로 인한 맞춤법의 오류를 찾아내어 인터넷 매체언어가 맞춤법 사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정도와 맞춤법 지식에 대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의 결과가 매체언어의 부정적 영향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매체언어가 실제 언어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맞춤법 지식에 대한 파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어 교육적 측면에서 인터넷 매체언어의 문제점을 극복할 대안과 해결책을 강구하는 정책적 연구들이 이루어졌다(백경녀, 2001; 신종희, 2002; 허재영, 2003). 선행연구들은 오늘날 아동과 청소년들의 매체언어 노출 정도를 고려하여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언어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특성과 실태-문제점-대책에 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오늘날 인터넷 매체언어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의 수준을 넘어, 일상의 대화와 차별화되는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최근 외국의 연구들(Alvermann, 2008; Guzzetti & Gamboa, 2005; Considine, Horton, & Moorman, 2009; Elkins & Luke, 1999)은 인터넷 매체언어를 아동, 청소년의 '온라인 문해(online literacy)', '인터넷 문해(internet literacy)'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재정의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기술 문해(technology literacy), 정보 문해(information literacy)의 연장선에 있는 새로운 형태의 문해로서, 컴퓨터, 특히 인터넷을 통한 읽기와 쓰기 현상 및 이 방식을 통한 학습과정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여전히 매체언어의 부정적이고 지역적인 측

면에 주목하고 있다.

더욱이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기성세대의 우려 수준을 넘어 매체언어를 실제로 사용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초점을 둔, 즉, 사용자의 심리학적 태도를 파악한 연구는 드물다. 지난 몇 년간 청소년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에 대해 어떠한 견해와 태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들이 증가하였지만(Colley, 2003; Kadjevich, 2000; Scumacher & Morahan-Martin, 2001; Tsai, 2004; Tsai & Lin, 2004),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는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다.

채팅언어가 언어규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평가한 선행연구(임규홍, 2000)에 따르면, 중학생들은 고등학생들보다 인터넷 매체언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대상 중, 고등학생의 87.3%는 채팅언어의 의사소통에서 거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가 대부분 긍정적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인터넷 매체언어가 시대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흥미로우며, 문자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게 하고, 편리하며, 다양한 감정 표현을 할 수 있어 사회적 유대감을 증진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국어 파괴, 부정적 또래동조, 의미의 불명확성 및 소통의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제기된다(신희삼, 2004). 그러나 지금까지 인터넷 매체언어의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대해 사용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지 파악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해 형성한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러한 태도가 발달 단계에 따라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이러한 매체언어에 대한 심리적 태도

가 실제 글쓰기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부정적 태도 뿐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함께 파악하고, 이러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글쓰기라는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글쓰기에 나타나는 인터넷 매체언어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연구대상이 인터넷 매체언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 스스로 보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글과 인터넷 상에 쓰는 글에 인터넷 매체언어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매체언어의 영향력과 과급력은 인터넷 주 사용자인 아동과 청소년층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소년층의 매체언어 사용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신중희, 2002; 임규홍, 2000; 탁형중, 2007). 그러나 최근에는 초등학교생들의 인터넷 이용률이 대단히 높은 수준이고, 이들의 매체언어 사용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성낙수, 2005; 송진행, 2003; 이세호, 2002; 조영남·박성호, 2003). 초등학교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를 문화기술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상당수의 초등학교생들이 취학 전부터 인터넷을 접했으며 학교나 동네에서 친한 친구들 간에도 이메일을 통해 의사소통하는 것을 즐긴다고 한다(조영남 외, 2003). 따라서 발달단계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의 매체언어 사용 경향을 파악하고 비교하기 위해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포괄하는 보다 넓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컴퓨터라는 매체를 통해 유행처럼 사용하는 매체언어가 발달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이들의 국어사용 능력에 악영향을 주는 행동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터

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대한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의 영향이 학생 스스로의 매체언어 사용 빈도 평가와 인터넷 상의 글쓰기 및 일반적인 글쓰기에 차별화되어 나타나는지 비교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이 통신상에 제한되는지 아니면 전반적인 언어발달에까지 미치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에 따라, 이 연구는 초·중·고생들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를 학생들의 자기 평가, 일반적인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 외에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을 함께 측정하여 초·중·고생 간의 발달적 차이를 비교하려고 한다. 또한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세 가지 평가 방식 간에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 연구를 통해 인터넷 매체언어와 문해 발달 간의 관계를 밝혀 아동과 청소년 지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교육, 맞춤법 교육, 쓰기 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학생들의 자기 평가, 일반적인 글쓰기 및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1.1 자기 평가, 일반적인 글쓰기 및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간에 상관관계가 있는가?

- 2.2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초·중·고생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맞춤법 지식,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가?
- 2.1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가?
- 2.2 맞춤법 지식은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가?
- 2.3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는 발달단계에 따라 다른가?
- <연구문제 3>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은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가?
- 3.1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은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대한 자기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 3.2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은 일반적인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가?
- 3.3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미치는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경기도 소재의 초·중·고교 각각 11, 8, 10 개교에서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1-3학년, 고등학교 1-2학년 총 1,05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부실 응답을 제외한 98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은 초등학교

312명(남 146, 여 166), 중학생 349명(남 139, 여 210), 고등학생 328명(남 203, 여 125)이었다. 초등학교 중 고학년인 4-6학년을 대상으로 한 이유는 이 집단이 저학년에 비해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률이 높고, 질문지 문항들을 읽고 답하는 조사 방법에 적절한 연령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 3학년은 입시를 치르는 시기여서 제외하였다.

## 2. 연구 도구

### 1)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이태영, 2000; 임규홍, 2000)의 정의를 활용하여, 인터넷 매체언어란 '컴퓨터에 의해 형성된 가상공간에서 텍스트화된 메시지의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이며, 그에 대한 사용자의 태도를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라고 정의한다. 연구자들은 선행연구(김옥향, 2004; 송진행, 2003; 신희삼, 2004; 이에라, 2001; 최호철, 2000; 황현경, 2005)에서 드러난 인터넷 매체언어의 긍정적, 부정적 특성을 중심으로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를 기술하는 40문항을 구성하였고, 중학교 3학년생 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신뢰도 분석을 거쳐 최종 34문항의 척도를 제작하였다.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척도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긍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17문항과 부정적인 측면을 기술한 17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긍정 영역은 인터넷 매체언어의 시대 반영성, 사용에 따른 흥미, 편리성, 창의성과 개성 표현 및 사회적 유대감 등을, 부정 영역은 인터넷 매체언어를 둘러싼 언어 파괴 현상, 부정적 또래 동조, 쾌락 추구, 의미의 불명확성, 언어폭력 및 소통의 어려움 등을 다룬다. 응답자가 각 문항을 읽고 그 내용에 얼마나 동의하는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단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두 영역의 문항 내적 일치도는 긍정 영역  $\alpha = .923$ , 부정 영역  $\alpha = .870$ 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문항에 대한 응답을 역으로 환산하여 총점을 구하였다. 총점은 34-170 사이에 분포한다.

#### 2) 맞춤법 지식

국어 맞춤법 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초·중·고·대학생·일반인 1,0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던 한국어 어문규범 능력 검사(민현식, 2001)를 사용하였다. 표준어,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표준 발음 등에 관한 총 5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답에 1점씩 부여하여 총점(0-55점)을 구하였다.

#### 3)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는 자기 평가와 함께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상의 글쓰기에 나타난 매체언어 사용 빈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자기 평가는 이모티콘, 줄임말, 외계어, 소리 나는 대로 쓰기, 신조어, 비속어, 숫자/자모 표기, 음운 형태 변이, 의미 변이, 품사 변이, 의성어/의태어, 특수문자의 12요소에 대해 '절대 쓰지 않는다'(1점)부터 '항상 쓴다'(4점)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합산을 통해 12-48점의 총점을 구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학급문집에 쓸 경우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200자 이상이 되도록 원고지에 쓰게 하였다. 인터넷 쓰기의 경우도 원고지를 사용한 이유는 주제, 시간, 통신 유형 등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였다. 이 두 가지 방식의 쓰기에 대해, 자기 평가에서와 동일한 12가지의 인터넷 매체언어 요소가 나타난 빈도를 계산하였

다. 각 요소가 나타날 때마다 1점씩 할당하여 합산한 수치를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로 보았다. 12가지의 인터넷 매체언어 요소의 의미와 예를 제시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 3. 조사 절차

해당 지역에서 대상 학교들을 임의 추출하고, 학교별로 1개 학년 및 그 중의 1개 학급을 무선 추출하였다. 학년말인 12월에 질문지를 담당교사를 통해 배부하고 1시간 후에 회수하였다.

### 4. 자료 분석

SPSS 17.0을 사용하여 수집한 자료를 코딩하고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과 표준편차 기술, 상관분석, 대응표본  $t$ 검정, 일원 변량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결과분석

### 1.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측정방법 간의 관계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를 세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였다.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와 특정 주제에 대해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를 했을 때 직접적으로 사용한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를 각각 평가하였다.

이 세 가지 방식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와 같이 세 변수 간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자기 평가와 일반적인 글쓰기에 나타난 빈도 간에는

<표 1> 인터넷 매체언어 요소의 정의와 예

인터넷 매체언어 요소	의미	예
이모티콘	기호를 조합하여 감정을 표현	^^;(땀 흘리는 모습으로 민망함 표시) ㅠㅠ(눈물 흘림), @.@(놀란 표정) OTL(엎드린 옆모습으로 좌절감 표시)
통신용 인사말	인터넷 매체언어용 인사말	하이루/할롱('Hi'에서 온 '안녕') 방가방가(반가워)
줄임말	단어를 축약하여 음절의 수를 줄이거나, 음운을 축약 또는 생략한 표현	남친(남자친구), 셜(시험), 댐(메일) 강추(강력히 추천하다), 완소(완전 소중함)
외계어	알파벳, 일본문자, 특수문자, 한글자모 등을 혼합한 정체불명의 표현	©렁께(이렇게), ☆로(별로) 말하지 않(아)도(말하지 않아도)
소리 나는 대로 쓰기	표기법을 고려하지 않고 발음 그대로 옮겨 적은 것	차카게(착하게), 마니(많이)
신조어	사회현상을 반영해 새로 생긴 말	초딩(초등학생), 얼짱(얼굴이 예쁜 사람) 된장녀(문화적 사대주의와 개념 없는 소비행태를 보이는 여성)
비속어	통속적으로 쓰는 저속한 말	쌍까다(모른 척하고 무시하다) 담탱이(담임교사)
숫자/자모 표기	숫자나 자모만으로 단어를 표현	8282(빨리빨리), 2000(이만) 츄츄츄(축하축하), 푸푸푸(푸하하)
음운 형태 변이	음운을 첨가하거나 교체하여 표현	왔당(왔다), 알쥐(알지) 따랑해(사랑해), 모이삼(모이세요)
의미 변이	원래의 의미가 변해 다른 의미를 갖게 된 말	도배하다(동일/유사한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다) 퍼가다(인터넷 상의 자료를 다른 곳으로 옮기다) 번개(통신을 통해 이루어지는 갑작스러운 모임) 대박(놀라운 일)
품사 변이	품사가 바뀐 말	님(성/이름 뒤에 붙는 의존명사)→상대방을 뜻하는 대명사)
의성어/의태어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로 감정을 표현	헉(놀랐음을 표시), 아햏햏(모호한 느낌) 휘리릭(통신 상황에서 재빨리 사라지는 모습)

$r = .179(p < .01)$ , 자기 평가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빈도 간에는  $r = .184(p < .001)$ , 그리고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빈도 간에는  $r = .261(p < .001)$ 의 상관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공통적으로 이 중 한 가지 방식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빈도가 높을수록 다른 방식에

나타나는 인터넷 매체언어 빈도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는 동일한 주제(자기소개)에 대해 동일한 분량 조건(200자 이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응답자별로 두 가지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를

<표 2>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측정방법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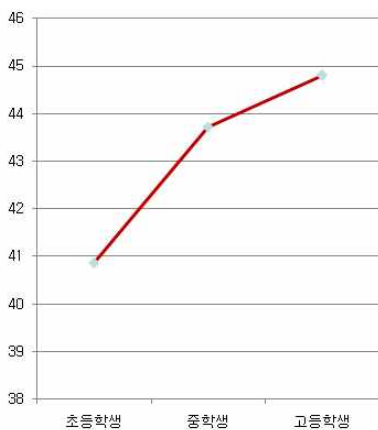
	1	2	3
1. 자기 평가	-	.179**	.184***
2. 일반적 글쓰기	-	-	.261***
3. 인터넷 글쓰기	-	-	-

\*\*\* $p < .001$ . \*\* $p < .01$ .

상호 비교함으로써, 두 가지 방식의 글쓰기가 차별화되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대응표본  $t$ 검정을 실시한 결과, 연구대상 학생들은 일반적인 글쓰기에 비해 인터넷 글쓰기를 할 때 인터넷 매체언어를 유의하게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988) = -5.853, p < .001$ ).

### 2. 초·중·고생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맞춤법 지식,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맞춤법 지식,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집단별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표 3>에 일원변량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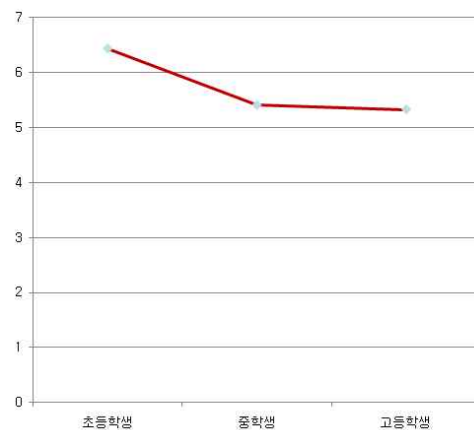


<그림 1> 맞춤법 지식의 발달

학교 집단과 상관없이 전체 연구 대상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는 서로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맞춤법 지식에 있어서는 초등학생들이 세 집단 중,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보였다 ( $F(2,988) = 32.892, p < .001$ ). <그림 1>에서 보듯이, 중학교 이후에 맞춤법 지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는 반면, 초등학생들의 맞춤법 지식은 아직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는 자기 평가, 일반적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의 세 가지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자기 평가 및 일반적 글쓰기에서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는 학교집단과 상관없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스스로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하는 정도를 서로 비슷하게 평가하고, 일반적 글쓰기에서도 그 수준이 비슷하였다. 반면에,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는 초등학생들이 유의하게 높았다( $F(2,988) = 4.283, p < .05$ , <그림 2> 참고). 다시 말해, 초등학생들은 인터넷 상에 글을 쓸 때 중학생과 고



<그림 2>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의 차이



<표 3> 초·중·고생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맞춤법 지식,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차이

변수	학교구분	n	평균(SD)	제곱합	df	평균제곱	F	사후검정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	초	312	103.01(15.128)	624.298	2	312.149	1.496	a	
	중	349	104.66(15.157)					a	
	고	328	102.98(12.916)					a	
	합계	989	103.58(14.450)						
맞춤법 지식	초	312	40.87( 5.115)	2464.252	2	1232.126	32.892***	a	
	중	349	43.72( 6.088)					b	
	고	328	44.81( 6.910)					b	
	합계	989	43.24( 6.323)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	자기 평가	초	312	26.78( 8.918)	353.296	2	176.648	2.889	a
		중	349	28.25( 8.003)					a
		고	328	27.57( 6.367)					a
		합계	989	27.56( 7.834)					
	일반적 글쓰기	초	312	4.14( 3.973)	23.591	2	11.796	.550	a
		중	349	4.74( 5.059)					a
		고	328	4.62( 4.664)					a
		합계	989	4.53( 4.625)					
인터넷 글쓰기	초	312	6.44( 5.371)	189.081	2	94.541	4.283*	a	
	중	349	5.41( 4.335)					a	
	고	328	5.33( 4.194)					b	
	합계	989	5.76( 4.720)						

\*\*\*p < .001. \*p < .05. 사후검정은 Scheffé 방식임.

등학생들에 비해 인터넷 매체언어를 유의하게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대한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의 영향

학생들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종속변수인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를 자

기 평가, 일반적 글쓰기, 인터넷 글쓰기의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각각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와 맞춤법 지식을 독립변수로 하는 투입(enter) 방식의 회귀분석 결과, 두 개의 회귀식이 유의하였다. 자기 평가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들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는 자기 평가를 통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대해 약 20%의 설명력을 보였다( $R^2 = .199, p < .001$ ). 그리고 인터넷 상의 글쓰기에 나타난 인

&lt;표 4&gt;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가 실제 사용에 미치는 영향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의 평가방식	독립변수	R	R <sup>2</sup>	수정된 R <sup>2</sup>	B	β	F
자기 평가	인터넷 매체언어	.446	.199	.198	.241	.447	121.850***
인터넷 상의 글쓰기	태도	.156	.024	.022	.051	.153	8.812***

\*\*\* $p < .001$ .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대해서도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R^2 = .024, p < .001$ ). 즉,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자신이 인터넷 매체언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인식하며, 인터넷 상에 글을 쓸 때도 인터넷 매체언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에 인터넷 매체언어 태도는 학생들의 일반적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를 측정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맞춤법 지식의 영향력은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맞춤법에 대해 많이 알거나 잘 모르는 것은 학생들의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IV. 논의 및 결론

이 연구는 초·중·고생 989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 맞춤법 지식 및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의 발달적 경향을 살펴보고, 그들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실제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기 평가, 일반적 글쓰기, 인터넷 상의 글쓰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에 대해 논의하며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자기 평가, 일반적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빈도에는 정적 상관이 있으며, 학생들은 일반적 글쓰기보다 인터넷 글쓰기에서 인터넷 매체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즉, 초·중·고생들은 인터넷 상의 글쓰기를 일반적인 글쓰기와 차별화한다. 인터넷 매체언어를 일반적인 언어 환경보다는 특수한 통신 환경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다. 현행 국어교과서 중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듯이, 학생들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특성을 알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구별하여 글쓰기를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백경녀(2001), 황현경(2005)의 연구와 다소 차별화되는 결과이다. 백경녀(2001)의 연구에 참여한 중·고생의 70%는 인터넷 매체언어가 그들의 일상 언어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41%는 어른들에게도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황현경(2005)의 연구에서는 중학교 3학년 응답자의 86%가 일상적인 글을 쓸 때도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하며, 이 중 29%는 '구별이 어려워져서', 27%는 '습관이 되어서'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학생들의 쓰기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인터넷 매체언어가 통신 맥락에 집중되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분석 방식 간의 상관관계로 볼 때,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매체언어를 많이 쓰는 학생이 일반적 글쓰기에서도 많이 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인터넷 매체언어와 일상 언어를 혼동하여 맥락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를 전체 아

동과 청소년에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다. 그러나 아동과 청소년들이 인터넷 매체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해서 쓰는 일은 매우 중요하므로, 특히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빈도가 높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의 국어교육 및 매체교육을 충실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초·중·고생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에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상급학교로 갈수록 맞춤법 지식은 높아지고, 인터넷 상에서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줄어든다. 이는 인터넷 채팅에서 초등학생이 대학생에 비해 더 심한 어미 파괴를 보인 결과(이재현, 2004)와 유사하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대해 평균적으로 중도적인 태도를 보였다. 백경녀(2001)의 연구에서도 중·고생 41%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보다는 집단 내의 개인차에 따라 이들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가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누적적인 국어 학습에 따라 청소년들의 맞춤법 지식이 증가하며, 인터넷 상에 글을 쓸 때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은 발달단계상 나타나는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해도 좋을 듯하다. 학령기의 아동들은 또래집단에 동조하는 욕구가 특히 강하기 때문에 또래집단의 행동 기준이 이들에게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러한 동조현상을 통해 그들 나름대로의 태도나 가치관이 형성된다(정옥분, 2003). 아동들이 인터넷 문화에 적응해가는 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언어의 차별적 특성에 몰입되고 또래들의 행동에 동화됨에 따라 인터넷 매체언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런데 이 연구에 참여한 초등학생들은 중·고생들에 비해 더 어린 연령부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기부터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는 추후의 종단적 연구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규명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중고생에 비해 맞춤법 지식수준이 낮은 초등학생들이 인터넷 상에 인터넷 매체언어를 사용하는 비율은 더 높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인터넷 매체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는 것은 5학년부부터이다. 5학년의 ‘듣기’ 영역 내용 중에 ‘온라인 대화를 일상 대화와 비교하여 이해한다’라는 내용이 있다. 이는 7차 교육과정에서 중학교 1학년부부터 매체언어 교육을 실시했던 것<sup>1)</sup> 보다는 대상 연령이 낮춰진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사용이 점차 저연령화되어 대부분 취학 전부터 인터넷을 접하고,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률이 매우 높으며, 이들이 인터넷 매체언어라는 사회언어학적 현상에 동조하는 경향이 특히 높음을 고려할 때,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을 지금보다 더 일찍 시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인터넷 매체언어의 특성, 인터넷 매체언어와 일반 언어의 차이점, 통신상에서 언어를 올바르게 활용하는 태도에 대한 교육을 초등학교 저학년부부터 실시하여, 인터넷 매체언어의 과도한 사용이 아동의 언어 발달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김성희(2008) 역시 인터넷 사용과 관련된 아동들의 문제가 고착화되기 전에 매체언어 교육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위의 연구에서는 교육내용 요소의 예 중에

1) 당시의 중학교(1-2) ‘5. 글의 짜임’ 단원에 포함된 소단원 ‘통신언어, 어떻게 쓸 것인가’에서는 매체언어의 특징을 말하고, 매체언어와 일상 언어를 구분해서 사용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서 특히 ‘바람직한 온라인 대화 태도 형성’ 항목과 같은 내용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더욱이 쓰기 영역과 관련된 현행 교육과정의 매체교육은 8학년의 ‘온라인 대화, 문자 메시지, 전자우편의 매체적 특성 이해하기’, ‘매체의 특성이 쓰기의 내용과 형식에 미치는 영향 이해하기’, ‘매체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식의 글쓰기’, ‘속어, 비어, 성차별적 언어 사용 등 부적절한 표현 고쳐 쓰기’의 내용으로 제시되어,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만 이루어진다. 매체언어 교육의 내용이 언어의 네 가지 구성요소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 걸쳐 초등학교 때부터 공통적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형식상 문자언어인 매체언어를 학생들이 표현하는 방식은 쓰기를 통해서 이므로 일찍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쓰기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초·중·고생이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해 가지는 태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의 여부가 이들의 실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다. 즉, 인터넷 매체언어의 시대 반영성, 흥미, 편리성과 사회적 유대감 등의 긍정적 요소를 높이 평가하고, 인터넷 매체언어를 둘러싼 언어 파괴 현상, 부정적 또래 동조, 의미의 불명확성, 소통의 어려움 등에 대한 우려 수준이 낮을수록 실제로 인터넷 매체언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이는 중학생들이 인터넷 매체언어를 일상 언어와 혼용하는 것이 성별이나 연령보다는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의식의 차이에 좌우된다는 김옥향(2004)의 지적과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위의 연구는 인터넷 매체언어를 일상 언어와 ‘구분해서 써야한다’는 의식을 가진 학생들이 실제로 인터넷 매체언어를 적게 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이 우리말을 해치고 정

상적인 언어 발달을 위협하는 위험 수준에 다다른다면,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중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기성세대의 우려와는 달리, 학생들의 맞춤법 지식의 부족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현재 초·중·고생들의 국어 학습 능력과 맞춤법 지식이 과거에 비해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적절한 국어 교육과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 교육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에 개정 고시된 국어과 교육과정이 매체언어, 즉 인터넷 매체언어를 활발하게 사용하는 학습자들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김정자, 2007) 관련 교육 내용을 상당 부분 포함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 연구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주 사용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인 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인터넷 매체언어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였고, 이러한 태도가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밝혔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즉,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이 매체언어의 사용이라는 행동을 설명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 연구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여 발달적 경향을 폭넓게 비교하여 초등학생들의 특성을 가려내었다. 초등학생들이 상급학교 학생들에 비해 맞춤법 지식은 적고 인터넷 매체언어는 더 많이 사용하므로, 매체언어 교육이 보다 일찍부터 실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의 측면에서는, 학생들이 스스로 평가한 사용 빈도와, 일반적인 글쓰기 및 인터넷 글쓰기에 나타난 인터넷 매체언어의 빈도로 구분하여 조사함으로써 보다 입

체적인 비교를 실시하였다. 자기 평가와 실제 쓰기를 비교하고, 실제 쓰기를 인터넷 매체언어와 일상 언어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는 이 세 가지 방식이 서로 상관을 가지며, 일반적인 글쓰기와 인터넷 글쓰기가 차별화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이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이를 해결하는 방향에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전반적인 인터넷 매체언어 사용빈도와 사용자의 심리적 특성에 초점을 두었으므로, 인터넷 매체언어의 각 요소를 구분하여 분석하지 않고 빈도를 합산한 총점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분석방법에서 나아가 보다 세밀한 분석을 실시한다면, 아동과 청소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유형을 발달단계별로 비교하고, 영역별 맞춤법 지식과의 관계도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초·중·고생들의 맞춤법 지식이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반대로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에 따라 맞춤법 지식이 영향을 받는지의 여부는 살펴볼지 못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맞춤법 지식 발달 자체에 관한 연구에서 이 부분을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추후에는 인터넷 매체언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요소들을 다양하게 구분하여 쓰기와와의 관련성을 연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인터넷 글쓰기의 경우, 인터넷 상에 글을 쓴다고 가정하도록 지시하되 일반적인 글쓰기와 동일한 방식으로 종이와 필기도구를 이용해 실시하였다. 이는 두 가지 방식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있는지의 여부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주제, 시간, 통신유형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었다. 그러

나 학생들이 컴퓨터나 기타 통신기기를 이용해 웹상에 글을 쓸 때의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인터넷상의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개인 홈페이지 및 커뮤니티의 토론방 등에 게시된 아동과 청소년들의 글을 대상으로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을 살펴보되, 익명 여부와 게시자의 연령, 성별 등을 포함한 신상정보, 글의 주제 등을 통제하여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앞서 논의했듯이, 이 연구는 횡단 설계를 통해 동시에 초·중·고생들의 인터넷 매체언어에 대한 태도와 맞춤법 지식, 그리고 인터넷 매체언어의 사용 빈도를 살펴보았다.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아동과 청소년 집단 간에 세대 차이, 이른바 코호트 효과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동일 연령 집단의 시간에 따른 발달적 변화를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특히 몇 년에 걸친 동일인의 실제 쓰기 자료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 참 고 문 헌

- 김기석(2001). 휴대전화 문자언어의 실태 분석과 국어 교육적인 방안. **교육한글**, 14, 67-97.
- 김봉섭(1998). PC 통신에서의 언어폭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성희(2008). 인터넷 매체언어의 교육 내용 연구-문화적 소통에 대한 참여를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79, 55-77.
- 김영혜·손현미·양영옥·조영란·이내영(2007). 초등학교 학생의 인터넷 게임중독과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애착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13(4), 383-389.
- 김옥향(2004). 통신언어의 사회언어학적 특성-통신언어와 일상언어의 혼용 실태를 중심으로. 건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은진(2004). 초등학생의 통신언어 사용실태 및 지도 방안.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정자(2007). ‘국어’ 교육과정의 매체언어 교육 내용. **국어교육학연구**, 28, 37-72.
- 노형남(2000). 한국어 채팅 표현에 관한 연구. **사회언어학**, 8(2), 107-137.
- 변윤언·이광호(2004). 청소년의 인터넷상 언어사용에 나타난 문화특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6(2), 25-37.
- 백경녀(2001). 청소년의 언어사용에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통신언어 및 일상언어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성낙수(2005). 초·중·고등학생들의 문어 연구 -이른바 통신언어를 중심으로-. **청담어문교육**, 32, 181-211.
- 송민규(2001). PC 통신언어에서 나타나는 폐음절화의 경향. **국제언문**, 24, 39-57.
- 송진행(2003). 초등학교 고학년의 통신언어 사용실태 연구. 위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신종희(2002). 중학생 PC 통신언어의 실태 분석. **국어교육연구**, 34, 107-140.
- 신호철(2005). 인터넷 통신언어 속의 외계어에 대한 고찰. **국제어문**, 34, 5-31.
- 신희삼(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어휘적 의미. **한국어 의미학**, 15, 207-225.
- 이선웅(2009). 대중매체 언어 연구의 현황과 과제. **어문학**, 103, 117-142.
- 이세호(2002). 인터넷 통신이 초등학생의 국어생활에 미친 실태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승후(2002). 통신언어의 특징과 문제점. **새국어교육**, 64, 209-227.
- 이시훈(2004). 인터넷 통신언어의 사용 현황과 인식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4(1), 177-211.
- 이에라(2001). PC통신의 대화언어가 국어 생활에 미치는 영향. **국어교육연구**, 13, 49.
- 이재현(2004). 인터넷 채팅에서의 언어 사용에 대한 어학적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15, 27-46.
- 이정복(1997).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및 약어 사용 실태와 순화 방안. 외래어 사용 실태와 국민 언어 순화 방안**. 서울 : 국어학회.
- 이정복(1999). 컴퓨터 통신 분야의 외래어 사용. **새국어생활**, 8(2), 61-79.
- 이정복(2003). 대구 지역 대학생들의 게시물에 나타난 통신언어 분석. **한국어학**, 21, 239-267.
- 이정복(2005). 사회언어학으로 인터넷 통신언어 분석하기 -최근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어학**, 27, 37-79.
- 이정복(2006). 인터넷 통신언어 자료에 나타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방언사용 실태. **우리말글**, 38, 135-168.
- 이진성(2001). 한국 대학생들의 맞춤법 오용 실태-통신언어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9(2), 119-141.
- 이태영(2000). **언어와 대중 매체**. 서울 : 신아출판사.
- 임규홍(2000). 컴퓨터 통신언어에 대하여. **배달말학회**, 27, 23-59.
- 정옥분(2003).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조영남·박성호(2003). 초등학생들의 인터넷 사용 실태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 **교육공학연구**, 19, 151-177.
- 최호철(2000). **사이버 시대의 언어생활. 사이버 시대의 삶의 질**.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 탁형중(2007). 학생들의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지도방법 연구.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국인터넷진흥원(2010). **인터넷 통계정보 검색 시스템 - 인터넷 이용지수 및 이용률**. 인터넷 자료 : [http : //isis.kisa.or.kr/](http://isis.kisa.or.kr/).
- 한동완(2003). 언어매체적 특성으로 본 인터넷 통신언어. **어문연구**, 31(2), 353-375.
- 홍정효(2008). 네트워크 기반 게임의 통신언어에 나타나는 유아 언어과피, 은어 및 비속어 사용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학회**, 17(1), 64.
- 홍지은(2006). PC 통신언어의 사용 실태와 교과 지도 방안.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황현경(2005). 통신언어 사용의 지도 방안 연구. 홍익

- 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허재영(2003). 국어교육과 온라인 문화 : 통신언어와 국어과 교육 -7차 교육과정의 표현, 이해 교육을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17, 271-314.
- Alvermann, D. E. (2008). Why bother theorizing adolescents' online literacies for classroom practice and research?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2(1), 8-19.
- Considine, D., Horton, J., & Moorman, G. (2009). Teaching and reading the millennial generation through media literacy.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52(6), 471-481.
- Colley, A. (2003).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 best and worst aspects of computing at school.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9, 673-682.
- Elkins, J., & Luke, A. (1999). Redefining adolescent literacies. *Journal of Adolescent & Adult Literacy*, 43(3), 212-215.
- Guzzetti, B., & Gamboa, M. (2005). Online journaling : The informal writing of two adolescent girls.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40(2), 168-206.
- Kadijevich, D. (2000). Gender differences in computer attitude among ninth grade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Computing Research*, 22, 145-154.
- Scumacher, J., & Morahan-Martin, J. (2001). Gender, Internet, and computer attitudes and experience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17, 95-110.
- Tsai, C. C. (2004). Adolescents' perceptions toward the Internet : A 4-T framework. *CyberPsychology & Behavior*, 7, 465-470.
- Tsai, C. C., & Lin, C. C. (2004). Taiwanese adolesc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regarding the Internet : Exploring gender differences. *Adolescence*, 39 (156), 725-734.

2010년 4월 30일 투고, 2010년 8월 30일 수정  
2010년 9월 10일 채택